

한국지리의 이해

Understanding Geography of Korea

2016. 4. 19

권상철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전공, kwonsc@jejunu.ac.kr)

* 오늘 소개하는 한국지리 내용은 2014년 8월에 작성한, '해외한국학 교재 개발: 한국지리'(Geography of Korea, 참여자, 권상철(제주대학교)-도시, 생산과 소비공간, 이의한(강원대학교)-자연지리, 정치영(한국학중앙연구원)-촌락, 인구, 김종혁(고려대학교)-세부 지역)의 내용과 대한민국 국가지도집(The National Atlas of Korea, 2014) 등을 개인적 견해와 더불어 엮은 것임 (해외한국학교재: 한국지리와 대한민국국가지도집은 한글, 영문 PDF 파일로 이용 가능함).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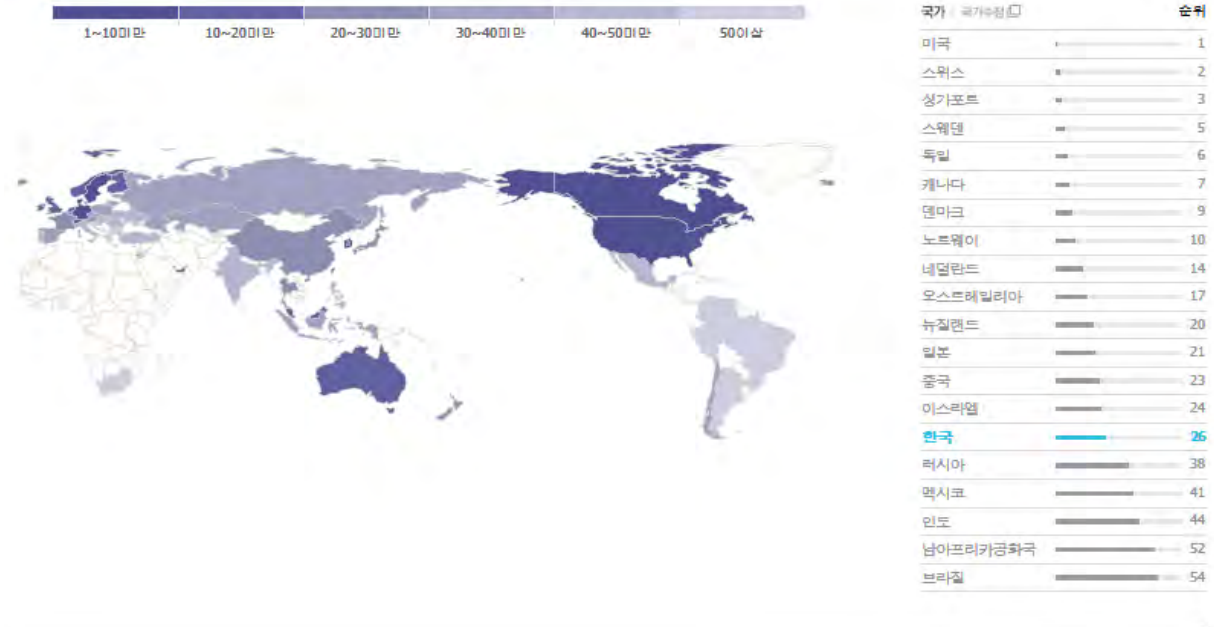
<목 차>

<p>해외 한국학 교재 '한국 지리'</p> <p>I. 총론</p> <p>1. 자연환경</p> <p>1) 위치와 영역</p> <p>2) 지형</p> <p>3) 기후</p> <p>4) 토양과 식생</p> <p>2. 인구와 거주 공간</p> <p>1) 인구</p> <p>2) 촌락</p> <p>3) 도시</p> <p>3. 생산과 소비의 공간</p> <p>1) 자원과 에너지</p> <p>2) 농림수산업</p> <p>3) 공업</p> <p>4) 교통과 정보통신</p> <p>5) 서비스업과 관광</p> <p>II. 다양한 한국의 지역</p> <p>1. 수도권 - 서울, 경기도</p> <p>2. 강원도</p> <p>3. 충청도 - 충청북도, 충청남도</p> <p>4. 전라도 - 전라북도, 전라남도</p> <p>5. 경상도 - 경상북도, 경상남도</p> <p>6. 제주도</p> <p>7. 북한</p>	<p>한국지리의 이해</p> <p>I. 한국 개관</p> <p>1. 세계속의 한국</p> <p>2. 다양한 한국의 지역</p> <p>II. 인구, 도시 그리고 경제</p> <p>1. 인구</p> <p>2. 도시</p> <p>3. 경제</p> <p>III. 대표 지역</p> <p>1. 수도 서울</p> <p>2. 국제자유도시 제주</p> <p>IV. 최근의 이슈</p> <p>1. 인구이동</p> <p>2. 저출산</p> <p>3. 외국인 증가</p> <p>참고문헌</p>
---	--

I. 한국 개관

1. 세계속의 한국

- 2014년 국가경쟁력(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의 4개 분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자료)
- 2010년 23위에서 2014년 26위



- 국제간 거래 경상수지 - 2013년 약 8백억달러 흑자

2013년 무역수지		2014년 국가별 수출액		2014년 국가별 수입액	
국가 국가수령기	백만 달러	국가 국가수령기	백만달러	국가 국가수령기	백만달러
독일	242,325	중국	145,288	중국	90,082
중국	182,807	미국	70,285	일본	53,768
네덜란드	94,974	일본	32,184	미국	45,283
한국	81,148	싱가포르	23,750	사우디아라비아	36,695
일본	41,132	대만	15,077	카타르	25,723
러시아	34,801	인도	12,782	독일	21,299
이탈리아	20,129	인도네시아	11,361	오스트레일리아	20,413
스페인	20,083	멕시코	10,846	쿠웨이트	16,892
핀란드	-2,466	오스트레일리아	10,283	대만	15,690
뉴질랜드	-5,931	러시아	10,129	러시아	15,669
남아프리카공화국	-21,194	브라질	8,922	영국	7,447
멕시코	-30,446	독일	7,571	프랑스	6,824
프랑스	-40,213	영국	5,783	이탈리아	6,261
인도	-49,226	네덜란드	5,296	캐나다	5,443
오스트레일리아	-50,227	캐나다	4,917	브라질	4,907
캐나다	-54,665	슬로바키아	4,299	칠레	4,810
터키	-64,658	폴란드	3,850	네덜란드	4,605
브라질	-81,108	이집트	2,364	나이지리아	3,096
영국	-120,215	뉴질랜드	1,730	남아프리카공화국	1,624
미국	-376,763	남아프리카공화국	1,476	뉴질랜드	1,526

2. 다양한 한국의 지역

- 한반도 동쪽 끝-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동도) 동단, 서쪽 끝-평안북도 용천군 신도면 마안도 서단, 남쪽 끝-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단, 북쪽 끝-함경북도 온성군 유포면 풍서동 유원진 북단
- 남한의 행정구역 - 2015년 현재 1 특별시, 1 특별자치시(세종시), 6개의 광역시(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8개의 도(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그리고 1개의 특별자치도(제주도)로 구성



5/23

- 한국의 행정구역은 3단계(특별시/광역시/자치시-구-동, 도-시-동)와 4단계(도-시/군-구/읍·면-동/리) 체제가 병존.
- 한국에서 광역시 기준은 인구 100만, 시는 5만 이상, 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의 인구가 50만을 넘어야함. 읍은 면이 승격한 형태인데 인구 2만 명이 넘으면 자격
-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지역 구분
 - 도시(urban)와 농촌(rural) 구분의 경우, 도시는 시-읍 지역, 농촌은 면지역
 - 수준별 구분 - 1 수준 특별/자치/광역시-도, 2 수준 시-군-대도시 구, 3 수준 읍-면-동

- 주소 표기 법
 - 최근 토지 지번 -> 도로명 주소로 변경/병행
 - 한국학중앙연구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 이전 -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49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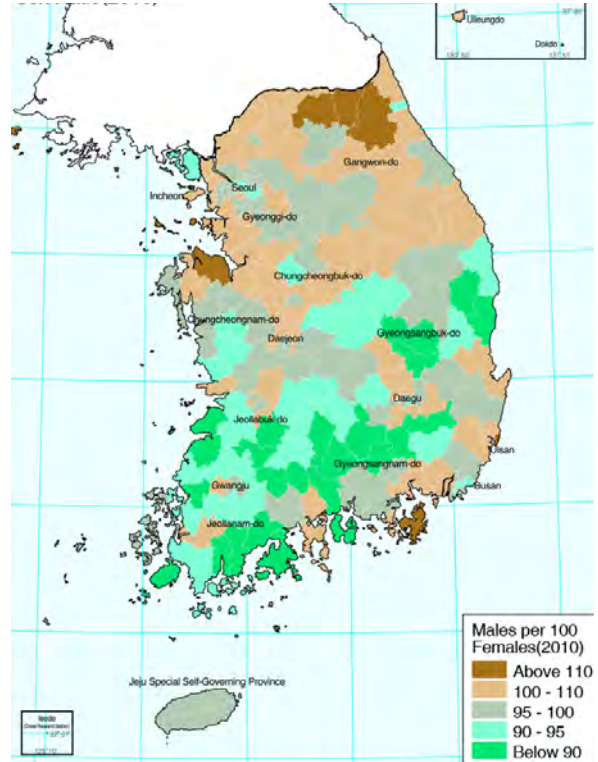


6/23

II. 인구, 도시 그리고 경제

1. 인구

- 가속화되는 고령화, 세계 최저 출산율
- 성별 인구 구조- 지역별 연령별 차이
 - 1955년 이후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2000년까지는 100.1~101.4, 2005년 99.5, 2010년 98.7, 이러한 최근의 성비 변화는 인구의 고령화를 반영.
-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남아를 선호, 다른 나라에 비해 출생 시의 성비가 매우 높은 편이나 최근 많이 완화되어 2012년 105.7 기록
- 도시와 농촌 지역 간 큰 차이 - 도시화·산업화로 이촌향도, 특히 젊은 여성들이 도시로 이주, 농촌에서는 결혼 적령기 인구의 성비 불균형 심각, 2010년 농촌지역(면부)의 25~29세의 성비 141.2. 농촌 남성들이 결혼을 하는 데 큰 어려움.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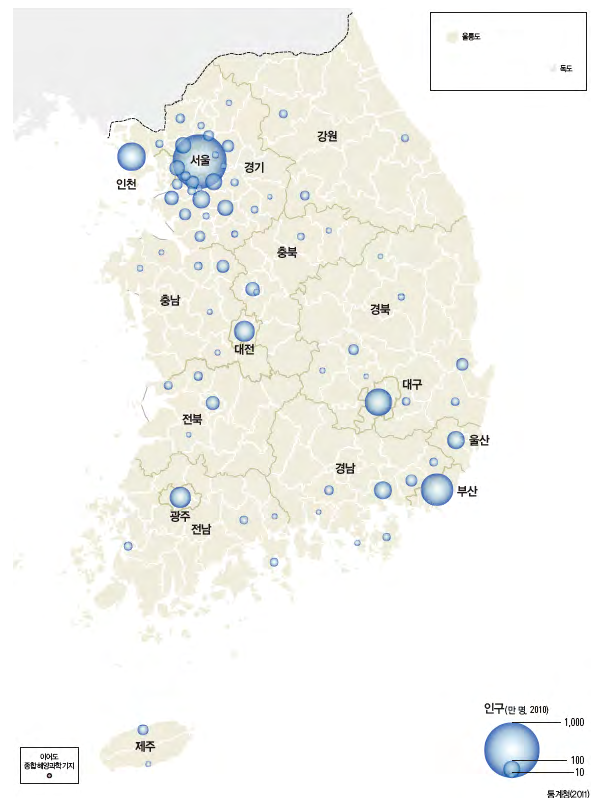


성비(2010)

7/23

2.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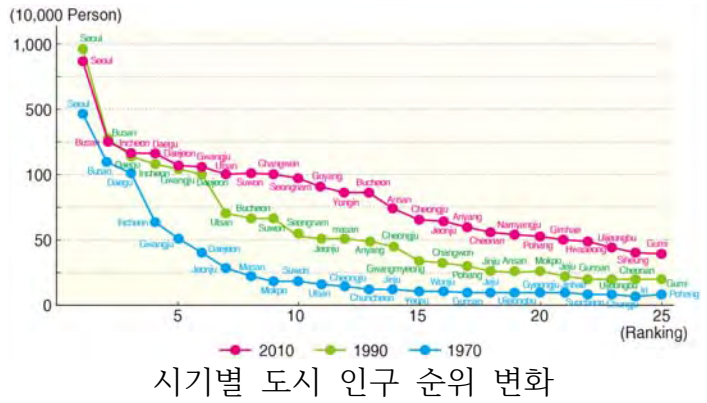
- 비대한 수도권과 압도적 아파트 경관
- 도시지역 - 시와 읍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로 나타내는 도시화율은 89.6퍼센트
- 도시의 분포 - 높은 수도권 집중
 -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도) 국토면적의 12퍼센트, 전체인구의 약 50%
 - 수도권 지역은 교육이나 취업, 소득, 각종 서비스 기회, 접근성 양호.
 - 집적불이익 - 부동산 가격 상승, 전국에서의 부동산 투기, 교통 혼잡과 오염 심화, 삶의 질 저하.
 - 수도권 인구 집중 분산,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성장억제정책을 시행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분산이 두 차례 시행되는데, 2009년 일부 중앙정부기관 정부대전청사로 이전,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수도이전을 위한 실행정수도특별조치법 수립, 그러나 수도 이전은 축소되어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도시규모별 분포

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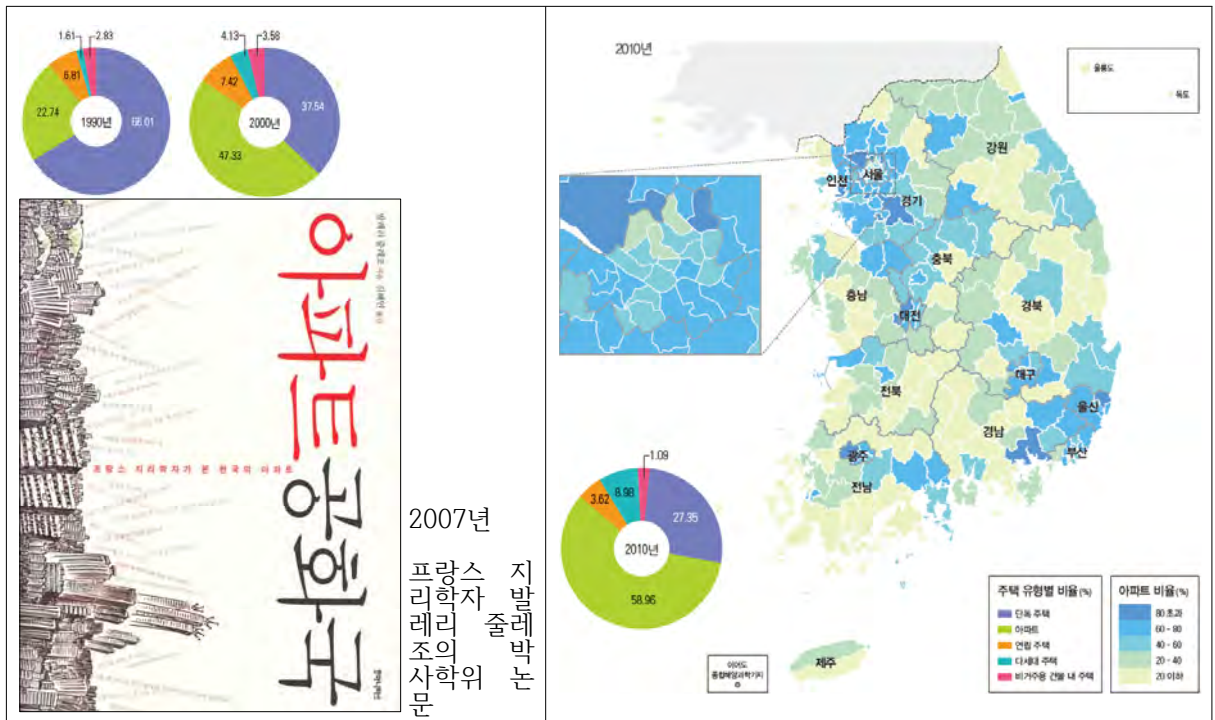
- 도시 체계, 도시 기능
 - 서울 중심의 종주도시, 계층적 도시 체계에서 점진적으로 지역 균형의 모습으로 변화
 - 수도권외의 경우 점차 생산자 서비스와 고급 소비자 서비스를 위시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화로 성장을 보이지만, 지방 대도시의 경우 위상 상실
- 특화 기능에 따른 도시 분류(2010년)



구분		1 < Z < 2	2 < Z < 3	3 < Z
제조업		아산시, 시흥시, 김포시, 구미시, 양주시, 양산시, 포천시, 거제시, 안산시, 김해시, 창원시, 안성시, 평택시, 파주시, 이천시, 광주시	화성시	-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성남시, 안양시, 포항시, 청주시	수원시, 대전광역시	과천시, 서울특별시
	금융·보험업	순천시, 서울특별시, 제주시, 통영시, 구리시, 문경시, 목포시, 마산시, 강릉시, 안동시, 전주시, 충주시, 서귀포시, 진주시	-	-
소비자 서비스업	도소매업	목포시, 구리시, 속초시, 서귀포시, 순천시, 서울특별시, 영주시, 제천시, 안동시, 전주시	하남시	-
	음식·숙박업	제주시, 계룡시, 보령시, 춘천시, 강릉시, 동해시, 목포시, 태백시, 진해시, 경주시	-	서귀포시, 속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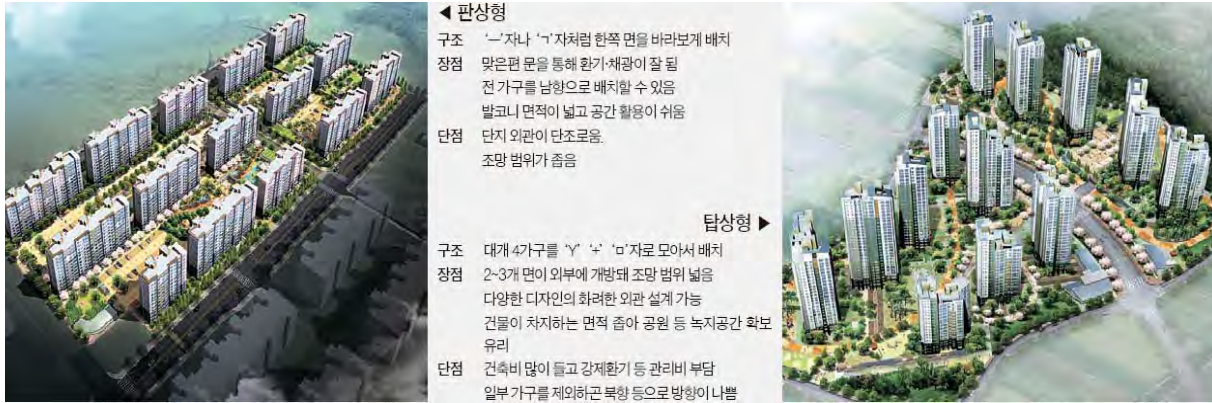
9/23

- 한국 (도시)의 특징 - '아파트 공화국'



- 주택유형 중 아파트의 증가, 1990년 22.7%, 2000년 47.3%, 2010년 59%
- 집(home) --> 주택(house), 상품, 투자대상으로 변질

- 아파트는 한국의 압축적 근대화 과정의 산물, 이촌향도의 인구를 수용할 주택부족, 정부는 공공용지를 자본가에게 낮은 가격에 제공, 건설업자는 표준화된 고층의 가장 효율적 형태의 주택 공급.
- 선호, 대중적/적정 주거면적(=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 당 85㎡ 이하인 주택, 25.7평, 1975년 설정 당시 가구원수 5.2인, 1인당 5평, 5X5.2=25.2평, 1평 3.3㎡)
- 아파트 주거는 대규모의 단지를 형성하며 인구 밀집, 개인, 교육 서비스업종의 입지로 이어지며 자족적 공동체를 형성, 도시의 공동체로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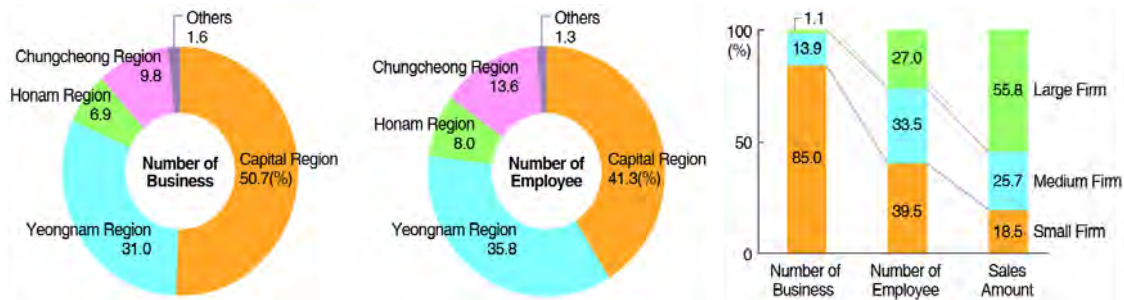
- 대도시의 경우 1인 가구의 증가와 일부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찾아 도시를 떠나 귀촌하는 모습으로 도시의 기능과 모습에 변화?

3. 경제

- 한국은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으며 급속한 경제발전을 경험하여, 세계에서 대략 열두 번째로 규모가 큰 경제로 성장. 2009년 OECD DAC (원조회원국) 가입.
- 자원이 부족해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면서 수출 주도형 제조업 성장을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국가 주도의 정책이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순위	수출품목명	수출액	수입품목명	수입액
	총 수출액	526,756,503	총 수입액	436,498,973
1	전자집적회로	52,173,406	원유(석유, 역청유)	31,608,455
2	자동차, 차량	41,720,565	전자집적회로	9,936,085
3	선박	21,570,425	석유가스와 그밖의 탄화수소 가스	1,698,738
4	전화기	29,855,459	석유와역청유(원유제외)	11,828,562
5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	23,053,355	전화기	3,494,566
6	석유와역청유(원유는제외)	30,621,726	자동차, 차량	15,064,815
7	액정디바이스, 레이저기기, 광학기기	21,487,067	석탄과석탄으로제조한 고체연료	3,389,007
8	석유화학 제품	8,317,386	반도체보울(boule), 웨이퍼(wafer) · 전자집적회로 · 평판디스플레이	1,797,754
9	부분품	6,013,003	자동차용 부품,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전사기	1,020,144
10	전기식 음향, 시각신호용기기(예: 벨 · 사이렌 · 도난경보기)	5,661,193	다이오드 · 트랜지스터 등 반도체 디바이스, 광전지, 발광다이오드	955,814

- 한국의 공업화는 1960년대부터 수입대체산업 육성에서 수출지향산업을 육성하여, 현재 반도체, 가전, 조선, 정유 제품 등이 주요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들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한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
- 한국의 산업은 1960년대 기본적 에너지, 도로망의 기반시설 확충, 본격적으로 수출 진흥을 목표로 지원 정책 시행. 1970년대 수입대체산업에서 수출 지향의 중공업화 정책을 위해 대규모 투자(6대 산업: 철강, 화학, 비철금속, 전자, 기계, 조선). 1980년대는 단순한 생산 요소의 증가보다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 인적 자본과 연구개발 투자 증가. 이 시기 동안 급성장한 기업들은 이후 한국 경제에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
- 한국 공업의 특색은 원료의 해외 의존과 제품 수출에 유리한 임해 지역에 발달, 공업의 지역적 편재로, 국토의 불균형 성장, 또한 정부 주도의 수출 지향 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제적 격차가 매우 큰 공업의 이중 구조를 보임.



공업의 지역별 비중과 이중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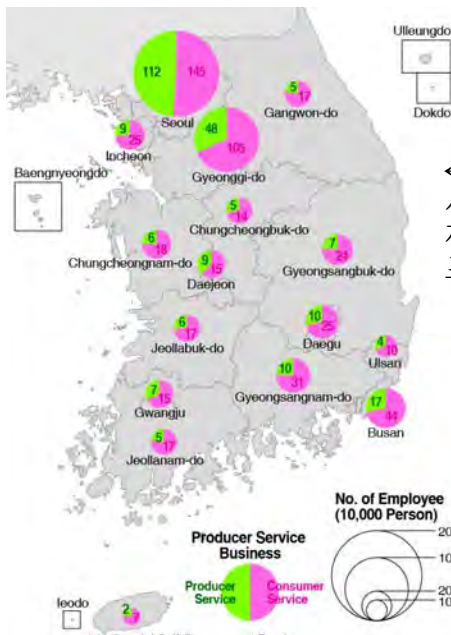
-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며 지역 불균형 발전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산업단지 조성, 혁신 도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최근 창조혁신센터의 조성 등의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음.



지역발전과 광역경제권(2009~13)



- 서비스 산업 - 서비스 산업 비중은 높지만, 고부가가치 생산자서비스에 비해 도.소매, 숙박.음식점업의 개인서비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해 전문성과 창의성의 지식기반서비스업, 문화콘텐츠의 개발, 육성이 과제



← 서비스업(생산자, 소비자)의 분포

→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문화-11, 자연-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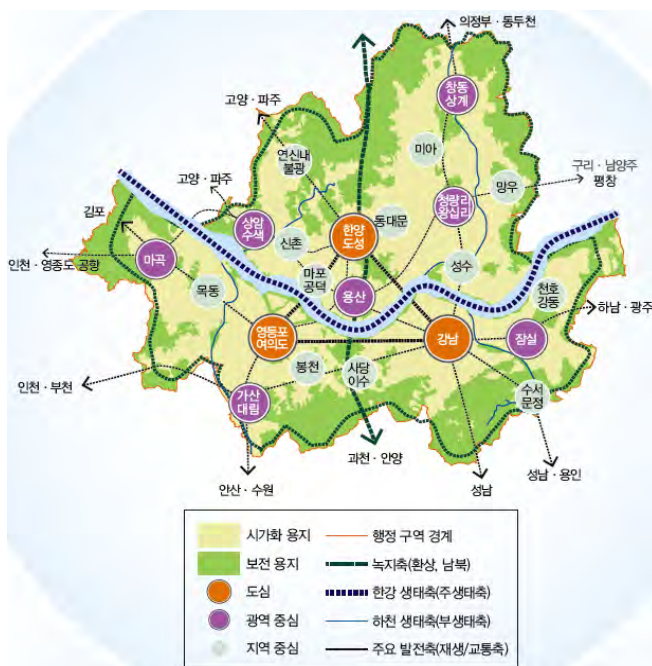


- 근래 동남아, 세계 지역에서 높은 한류 열풍(K-pop), 콘텐츠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III. 대표지역

1. 수도 서울

- 모든 것의 중심!



2014년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은?

서울글로벌지수 제10호 2014. 11. 10.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 The Seoul Institute

서울은 '글로벌 도시경쟁력' 종합순위에서 세계 40개 도시 중 3년 연속 6위 '고용접근성' 5위, '연구개발' 6위로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 기록. '가주' 분야는 23위로 낮아 행위자 부문에서는 '연구개발' 7위, '경영자'가 11위로 높은 순위, '예술가'는 35위로 낮은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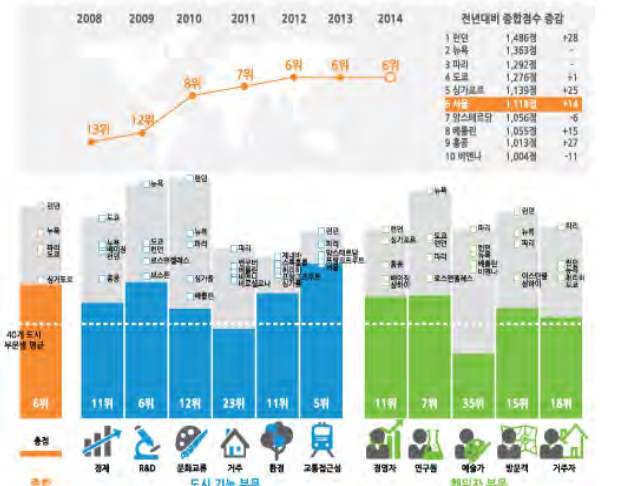
- 서울은 '글로벌 도시경쟁력' 종합순위에서 세계 40개 도시 중 3년 연속 6위, 아시아에서는 도쿄와 싱가포르에 이어 3위

일본 모리경제재단이 발표한 2014년 글로벌 도시경쟁력지수(GPCI : Global Power City Index) 에서 서울은 세계 40개 도시 중 6위를 기록

2008년 첫 순위발표 13위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3년 연속 6위

아시아에서는 도쿄(4위), 싱가포르(5위)에 이어 세 번째

* 글로벌 도시경쟁력(GPCI) 평가는 도시의 기능에 따라 경제, R&D, 문화교류, 거주, 환경, 교통접근성의 6개 분야 26개 평가 항목으로 나뉘며, 총 70개의 지표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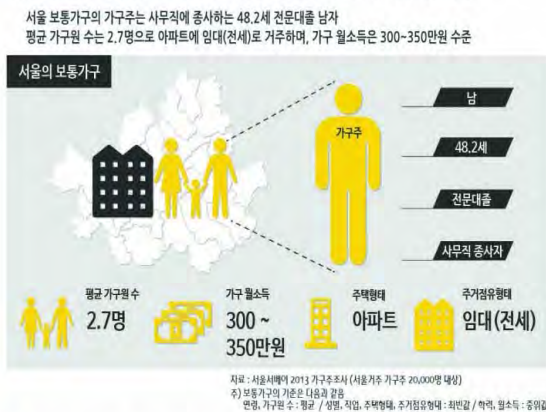


2013년 서울의 보통가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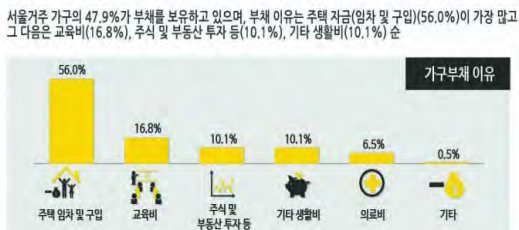
2013년 서울의 보통가구 가구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48.2세 전문대를 남자, 평균 가구원 수는 2.7명으로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가구 월소득은 300~350만원 서울거주 가구의 절반가량(47.9%)이 부채 보유, 주택 자금(56.0%)이 주요 원인



- 2013년 서울의 보통가구 가구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48.2세 전문대를 남자, 평균 가구원 수는 2.7명으로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가구 월소득은 300~350만원



- 서울거주 가구의 절반가량(47.9%)이 부채 보유, 주택 자금(56.0%)이 주요 원인



서울의 외국인 관광객, 가장 많이 찾은 곳은?

2014년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총 1,148만 명으로 3명 중 1명은 중국인 명동(72.8%)을 가장 많이 방문, 그 다음은 동대문시장(56.6%), 고궁(39.1%) 순 쇼핑 장소로는 일본인은 명동(61.0%), 중국인은 시내면세점(59.5%), 중동인은 동대문시장(41.9%) 선호



- 2014년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총 1,148만 명으로 3명 중 1명은 중국인

2014년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총 1,148만 명으로 추정되며, 2010년 706만 명에서 연평균 12.9% 증가 2013년 기준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거주국은 중국(35.9%)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일본(24.2%), 미국(6.5%), 대만(6.0%) 순 2012년까지는 일본인 관광객 수가 가장 많았으나 2013년 중국인 관광객이 그 수를 추월



자료: 한국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지), 문화체육관광부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우)
주 1: 서울 방문객 수는 문화체육관광부 '외래관광객 실태조사'(2010~2013년)의 서울 방문 비율을 기준으로 추산
주 2: 2014년의 경우 서울 방문 비율이 발표되지 않아 전년도 비율을 적용하여 서울 방문객 수 추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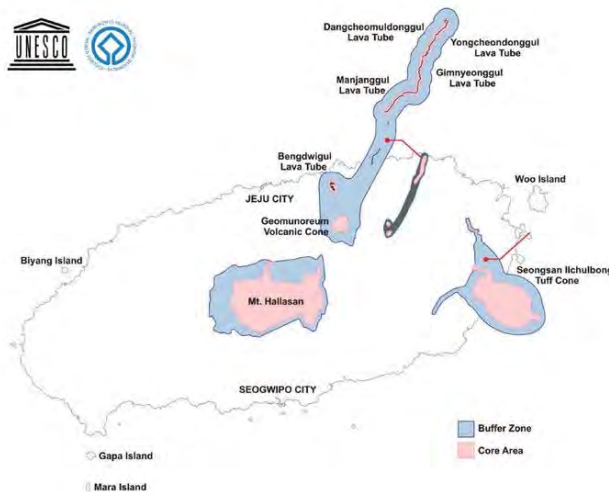
- 명동(72.8%)을 가장 많이 방문, 그 다음은 동대문시장(56.6%), 고궁(39.1%), 남대문시장(32.8%) 순

2013년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은 장소는 명동(72.8%)이었으며, 그 다음은 동대문시장(56.6%), 고궁(39.1%), 남대문시장(32.8%) 순(중복응답) 위와 같은 전통적인 관광지 외에 신촌/홍대주변, 강남권(코엑스, 가로수길, 청담동, 강남역역대)과 같이 최근 인기가 상승한 관광지도 눈에 띄어



2. 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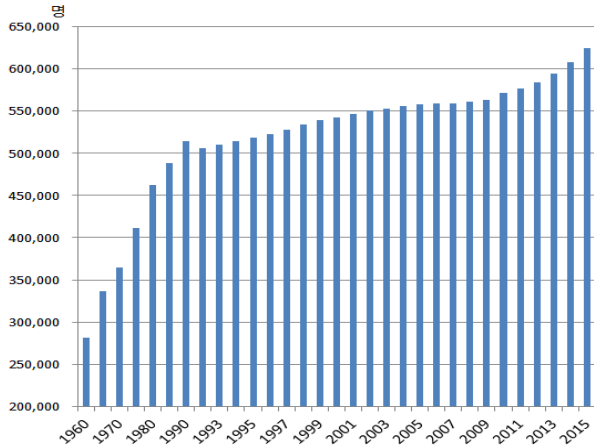
- 최근 10년전부터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곳!
- 최근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곳! 제주국제자유도시(Jeju Free Int'l City, 2002년 지정), 세계평화의 섬 제주(2005년 지정), 제주특별자치도(Special Governing Province, 2005년), UNESCO 세계자연유산(World Natural Heritage,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2007년 등재), 제주도 세계지질공원(Geopark, 2010년 지정), 제주 영어교육도시(Global Education City, 2011년 개교, 3 Int'l Schools)



기타

제주 칠머리당 영등 굿(shaman ritual for calming winds and rich fishery, 유네스코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2009 지정) ... 해녀(Women Divers), 발담(Basalt Fields Walls)

- 인구 증가 - 제주 인구 유입 급증



제주도 인구 변화

**‘제주에 살고파요’
식지 않는 이주열기**

‘제주살이 열기’ 올해도 이어질까

**2월 순유입인구 1738명...월 기준 사상 최고치
‘핫한 곳’ 떠오르며 주택가격 급등 등 부작용도**

**지난해 사상 최대치 1만4300여명 순유입
원주민과 갈등·부동산 안정대책 등 과제**

제주살이 열풍이 거세 지난해 제주로 순유입된 인구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제주 순유입 인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서 뒤 더욱 가속페달을 밟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주민이 제주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원주민과의 갈등, 이주민들이 풍광 좋은 해안변 등에 차리는 카페나 게스트하우스가 주변 땅값까지 함께 올려놓는 부작용도 적잖다. 이는 제주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힐링의 섬’으로 자리잡으려면 이주민을 도민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려는 열린 마음과 보다 현실적인 귀농귀촌대책, 폭등한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얘기가기도 하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국내 인구가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로 순유입(전입-전출)된 인구는 1만4300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8만3000명이 제주를 떠나는 동안 9만8000명이 제주로 전입한 것이다. 이같은 순유입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1만명을 넘겼던 지난해(1만1112명)보다 28.7% 증가한 숫자다.

제주에는 모든 연령층에서 골고루 순유입돼 제주살이 열기를 반영했는데 30~40대의 젊은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30대 순유입 인구가 3800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3400명, 50대가 2500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젊은층의 경우 가족과 함께 제주살이에 나서면서 10세 미만 인구가 2000명이 순유입됐고, 10대도 600명에 달했다. 60세 이상 순유입 인구는 1500명이었다.

제주 전입자의 절반 이상은 경기와 서울에서 이동한 이들로 경기 27.5%, 서울 27.1%, 부산 7.1%로 집계됐다. 제주 전출자의 26.1%는 서울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기로 24.1%, 부산으로 7.3%가 전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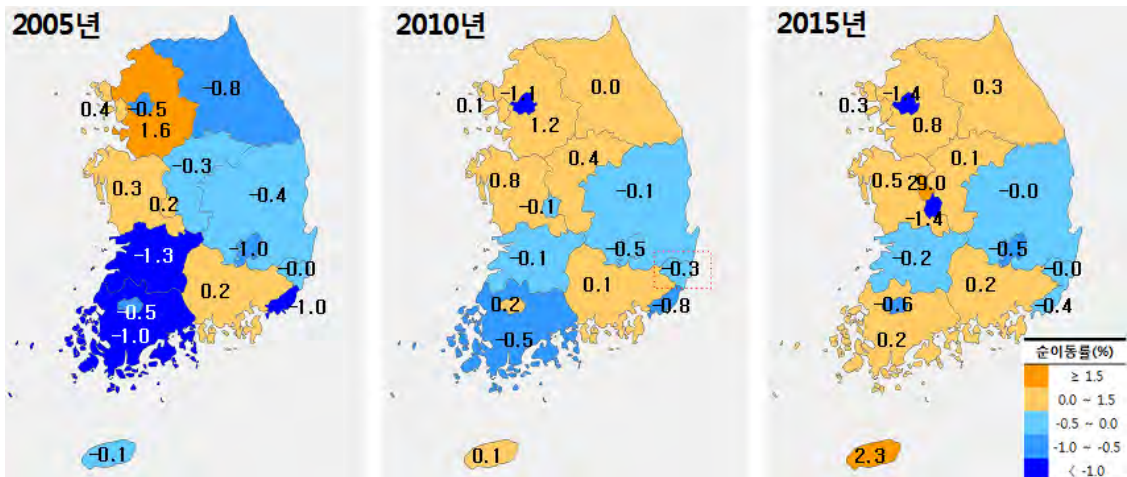
제주로 살터를 옮기는 주민 사유는 직업 관련이 가장 많아 서귀포혁신도시와 제주이전 기업에 따른 유입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청정환경을 좇아 제주살이를 택한 이들도 적잖아 당분간 제주이주 행렬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제주로 이주한 이유는 직업 관련이 77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 2100명, 주택 1500명이 뒤를 이었다. 자연환경 때문에 제주살이를 택했다는 이들도 2000명, 주거환경이 400명에 달해 귀농귀촌 희망지로 제주에 대한 인기를 반영했다.

한편 제주는 10년 전만 해도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많아 2005년의 경우만 해도 1000명이 순유출됐다. 젊은층의 대학 진학과 취업 목적 등이 전출자가 많은 계 주원인이었는데 2010년부터는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2010년 437명의 인구가 순유입하기 시작해 2011년 2343명, 2012년 4876명, 2013년 7823명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 데 이어 2014년 사상 처음으로 순유입 인구가 1만명을 넘어섰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IV. 최근의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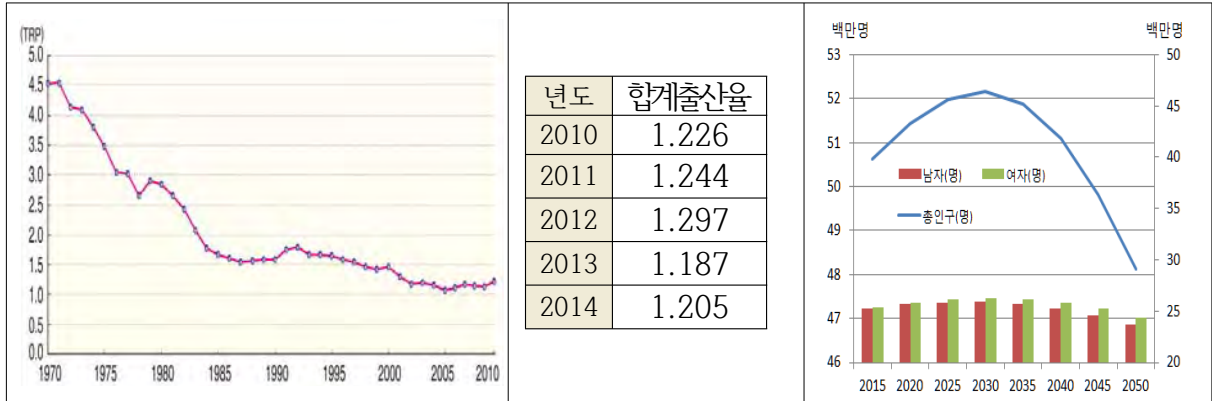
- 인구이동 - 인구의 수도권, 대도시 집중에서 **귀촌-귀농 이동** 증가, 자연적 균형발전?
 - 2014년 도시 거주 인구는 전체 인구의 90.5%를 차지,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화현상이 두드러진다. 한국에서는 수도권 서울과 주변지역인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합쳐 수도권(capital region)이라 부르는데, 이 지역은 전체 국토면적 약 12%인데 전체 인구의 49%가 거주
 - 인구 이동



- 오랜 이촌향도에서 벗어나, 근래 이도향촌, 귀촌 현상이 나타남. 2015년, 세종시는 새로운 행정도시(이전 수도이전 계획도시), 제주는 귀촌의 핵심지로 등장.

2. 저출산 - 아이가 줄고 노인이 늘어나며, 인구절벽으로 가는 중?

-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으로 인구증가율을 낮추는 데 성공하였으나, 최근에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경제 위축 등 문제.
- 출산율 급감 원인으로는 여성들의 사회활동 증가, 출산과 육아에 따른 비용, 독신과 만혼 증가 추세, 사교육 비용 등.
- 정부는 30여 년간 지속해온 인구 억제정책을 포기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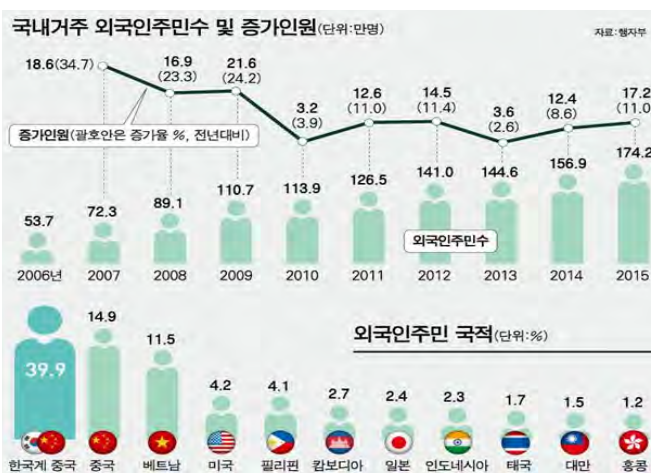


합계출산율의 변화(1970~2010~2014), 미래 추계인구

- 출산율 감소, 인구 고령화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인구문제.
- 국제이동은 매년 약 3-4만명 유입 증가, 그러나 2030년을 기점으로 인구는 급격히 감소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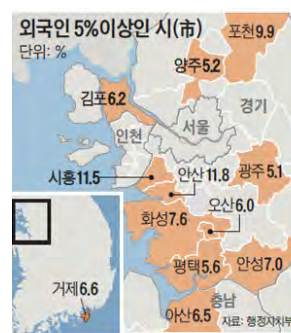
3. 외국인 증가

- 단일민족을 강조하던 한국 사회에서는 비교적 새로운 현상.



1. 경기 554,160명(31.8%)
2. 서울 457,806명(26.3%)
3. 경남 108,375명(6.2%)
4. 인천 91,525명(5.3%)
5. 충남 83,524명(4.8%)

전체 외국인수(2015년)
1,741,919명



외국인 거주 비율 5% 이상 도시

도시	인구(명)	비율	외국인(명)
안산시	70만7876	11.8%	8만3648
시흥시	39만4639	11.5%	4만5471
포천시	15만5798	9.9%	1만5390
화성시	54만8862	7.6%	4만1267
안성시	18만1896	7.0%	1만2697
거제시	24만8287	6.6%	1만6352
아산시	29만3954	6.5%	1만9023
김포시	34만310	6.2%	2만0991
오산시	20만8565	6.0%	1만2459
평택시	44만9555	5.6%	2만5321
양주시	20만2072	5.2%	1만420
광주시	29만8858	5.1%	1만5246

<다문화 수용성 관련 주요 국제지표 항목> (단위: %)

구분	한국	미국	독일	스웨덴	호주
일자리가 귀할 때 자국민 우선 고용에 찬성	60.4	50.5	41.5	14.5	51.0
외국인 노동자/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음	31.8	13.7	21.5	3.5	10.6
자신을 세계시민으로 생각(대체로 또는 매우 그렇다)	55.3	69.1	62.3	82.0	79.5

* 출처: '15년 성인(일반국민) 다문화수용성조사, World Value Survey('10~'14)

참고문헌

-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2014,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국토지리정보원, 2010, 한국지리: 총론편.
국토해양부, 2012, 2012국토해양통계연보.
권영섭 외, 2007,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육성방안, 국토연구원.
권혁재, 2004, 한국지리-총론, 법문사.
김의원, 1989, 국토이력서, 매일경제신문사.
김형국, 1997, 한국공간구조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박승호 외, 2013, 고등학교 지리부도, 두산동아.
윤옥경 외, 2013, 고등학교 한국지리, (주)지학사.
이의한.정치영.권상철.김종혁, 출간예정, 해외한국학교재: 한국지리,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응철, 2012, Inside Korea: Discovering the People and Culture, 한림출판.
줄레조, 발레리/길혜연 역, 2007, 아파트 공화국: 프랑스 지리학자가 본 한국의 아파트, 후마니타스.
통계청, 2016, 2015 한국의 사회지표.